



実相寺鐘樓・짓소지 종루



実相寺大門・짓소지 대문

## 6. 耳(鼻)塚・귀(코)무덤

京都市東山区茶屋町には土を大きく盛り、その上に五輪塔が建てられた、壇塚があります。これは壬辰倭乱・丁酉再乱(文禄・慶長の役)と関係があるものです。

戦争の時、豊臣秀吉の命令により、朝鮮で参戦した武士達に、朝鮮人の首の代わりに朝鮮人の鼻を塩漬けにして樽に詰め京都に送れという命令が出ました。耳塚はそれを供養するために造られた塚です。『洛陽名所集』巻四には「高麗人来朝のおりは、此塚を見て、かならず落涙するときこえぬげにその時うたれし人の末なるもおほしとぞ」と記されており、朝鮮通信使の耳(鼻)塚参拝があったことがわかります。また、1624(寛永元)年の朝鮮通信使の副使であった姜弘重(カン・ホンジュン)が耳塚を見て、心を痛めたという記録があります。国交は回復していても、このようなものを見ると心が痛んだ。そのためなのか、1711(正徳元)年、朝鮮通信使の案内役をしていた雨森芳洲は幕府側に、耳塚が一行の目耳に触れぬようにすることを進言したこともありました。

교토시 히가시아마구 차야마치에는 흙을 높게 쌓아 올리고, 그 위에 5층탑이 세워져있는 작은 무덤이 있다. 이것은 임진왜란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전쟁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조선에 와 있던 무사들은 조선인의 목 대신 귀와 코를 베어 소금에 절여서 자루에 담아 교토로 보냈다. 귀무덤은 그것을 공양하기 위해 만든 무덤이다. 『낙양명소집(洛陽名所集)』권4에는 ‘고려인(=조선인)이 막부 조정을 방문할 때, 이 무덤을 보고 반드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참으로 그 때 살해된 사람의 최후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라고 기록해, 조선통신사의 귀무덤 참배를 알 수 있다. 또, 1624년 조선통신사의 부사였던 강홍중이 귀무덤을 보고, 마음 아파했다는 기록이 있다. 국교는 회복되었다고 해도 이런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픈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 때문인지 1711년 사행 때, 일행의 안내를 맡았던 아메노모리 호슈는 막부 측에 귀무덤이 일행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할 것을 진언한 일도 있다.



耳(鼻)塚・귀(코)무덤



耳(鼻)塚慰靈祭 · 귀(코)무덤위령제



朝鮮通信使の耳(鼻)塚着(京都大学図書館蔵) · 조선통신사 귀(코)무덤 도착(교토대학도서관장)

### 7. 朝鮮通信使の屏風・조선통신사 병풍

京都の泉涌寺には朝鮮通信使の様子を描いた屏風が残っています。右隻は朝鮮通信使が江戸に登城する様子、左隻は江戸城大広間での幕府による応接の様子を描いたもので、1655年使行の様子を幕府御用絵師の狩野益信が描いたもの。江戸城に入る朝鮮通信使を見る町の人々の表情は楽しんでます。また江戸城内で行われる朝鮮国王の国書を手渡す儀式の華やかな様子や、多く集まっている大名の様子から、当時江戸幕府がどれほど朝鮮通信使を重要に考えていたかが伝わるようです。江戸城での様子を描いたこの屏風が京都の泉涌寺に残るのは、後に尾張の徳川家がこの屏風を2代将軍秀忠の娘である和子(のちの東福門院)に贈ったからです。東福門院の遺品として泉涌寺に残っていたこの屏風は、今は京都市の指定文化財になっています。

교토의 천용사(센뉴지)에는 조선통신사의 모습을 그린 병풍이 남아 있다. 오른쪽은 조선통신사가 에도성에 들어가는 모습, 왼쪽은 에도성에서 있었던 막부의 응접 모습을 그린 것이다. 1655년 통신사 일행의 모습을 막부의 어용화가인 카노 마사노부가 그린 것이다. 에도성에 들어가는 조선통신사를 바라보는 에도 사람들의 표정은 즐거워보인다. 또 에도성내에서 실시된 조선국왕의 국서를 전달하는 의식의 화려한 모습이나, 영주들이 많이 모인 모습에서, 당시 에도막부가 얼마나 조선통신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가 전해지는 듯 하다. 에도성에서의 모습을 그린 병풍이 교토의 천용사(센뉴지)에 남아 있는 것은, 후에 오와리의 도쿠가와가 이 병풍을 2대 장군 히데타다의 딸인 가즈코(후의 도후쿠몬인)에게 선물했기 때문이다. 도후쿠몬인의 유품으로서 천용사(센뉴지)에 남아 있던 이 병풍은, 지금은 교토시의 지정문화재가 되었다.



泉涌寺に残った朝鮮通信使歓待図屏風・센뉴지에 남겨진 조선통신사 환대도 병풍



泉涌寺大門 천용사(신뉴지) 대문



泉涌寺仏殿・천용사(신뉴지) 불전



泉涌寺舍利殿 · 천용사(센뉴지) 사리전



泉涌寺仏殿と舍利殿 · 천용사(센뉴지) 불전과 사리전

### 8. 金戒光明寺榮撰院の通信使扁額・곤카이코우묘지 에이쇼인 통신사 편액

京都市左京区にある金戒光明寺の塔頭である榮撰院には朝鮮通信使の墨跡による扁額があります。

誰の書いた文字なのかについては朝鮮通信使と関係があると思われるいくつかの理由があります。まず扁額に朝鮮国信使と書いてあり、そのそばに「崇禎癸未中秋一(崇禎年号と癸未(1643年)という干支)」が記されています。また、朝鮮通信使の文字の下印章は当時の一行の従事官である申濡(シン・ユ、号は竹堂)のものです。

ここ榮撰院は、当時に彦根で朝鮮通信使の接待役を担当した彦根藩筆頭家老を代々つとめていた木俣家の菩提寺です。その縁で、帰路の通信使の応接の中で、文字を書いてもらったのではないかとされています。

교토시 사쿄구에 있는 금계광명사(곤카이코우묘지)에 속한 작은 암자인 영섭원(에이쇼인)에는 조선통신사의 필적으로 만든 편액이 있다. 누구의 글씨인지 모르지만, 조선통신사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편액에 조선통신사라고 써 있고, 그 바로 옆에 「승정계미(崇禎癸未)(승정은 명의 연호, 계미는 간지)」는 1643년을 의미한다. 또, 조선통신사의 글씨 아래의 인장은 당시 일행의 종사관인 신유(호는 죽당)의 것이다.

영섭원은 당시에 히코네에서 조선통신사의 접대역을 담당했던 히코네번에서 대대로 필두 가로를 맡고 있던 기마타 가문(木俣家)의 보리사(선조 대대로 위패를 모시고 제례를 담당하는 절)다. 그 인연으로 귀로의 통신사 접대 중에 글씨를 받은 것은 아닌가 생각되고 있다.



金戒光明寺榮撰院の扁額  
곤카이코우묘지 에이쇼인 편액



金戒光明寺榮撰院の紅葉·곤카이코우묘지 에이쇼인 단풍  
사진제공: <https://photo53.com/jishoin-shokokuji.php>



### 9. 天橋立知恩寺「同居窟」扁額·아마노하시타테지은사「동거굴」편액

丹後の天橋立にある臨濟宗の寺である知恩寺の扁額の文字は1711(正徳元)年朝鮮通信使の写字官である李壽長(イ・スチャン)という人のものです。また舞鶴市の海臨寺にも通信使随員の扁額があります。

탄고의 아마노하시타테에 있는 임제종 절인 지은사(지은인)에 있는 편액이다. 이 편액의 글씨는 1711년 조선통신사의 사자관인 이수장이라는 인물의 것이다.



天橋立知恩寺(宮津市)・아마노하시타테 지은지(미야츠시)

## 10. 京丹後市全性寺扁額·교탄고시 전쇼지 편역

全性寺がある京丹後市峰山町は朝鮮通信使が通った道筋ではありません。また、この扁額の文字を書いた下文圭(ビョン・ムンギュ、号は梅軒)が参加した1811(文化8)年の時は、対馬で国書を交換したため、京都まで来ませんでした。では、どうやって彼の文字で作った扁額が、ここ京丹後の寺にあるのでしょうか。それは、全性寺が京都の天龍寺と深い関係を持っているからだと思います。1811年、通信使が対馬に来た時、天龍寺の龍潭周禎(リュウタンシュウテイ)という僧侶が対馬で外交事務や接待役の仕事にかかわっていました。それで、全性寺の住職が龍潭周禎に頼んで、通信使一行から文字を書いてもらったことではないか思われています。

전성사(전쇼지)가 위치한 교탄고시 미네야마초는 조선통신사가 지나간 길은 아니다. 또, 이 편액의 글씨를 쓴 변문규(호는 매헌)가 참가한 1811년 통신사는 쓰시마에서 국서를 교환했기 때문에 교토까지 오지도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그의 글씨로 만든 편액이 여기 교탄고의 절에 있을까. 그것은 전성사가 교토의 천룡사(텐류지)와 깊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1811년 통신사가 쓰시마에 왔을 때, 텐류지의 류탄슈테이라는 승려가 대마도변에서 외교 사무와 접대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성사 주지 류탄슈테이에게 부탁해, 조선통신사 일행에게서 글씨를 받은 것은 아닌가 생각되고 있다.



全性寺(京丹後市)・전쇼지(교탄고시)

### 11. 建仁寺塔頭正傳永源院の「正傳院」扁額・겐닌지 부속 쇼덴에이겐인 편액

建仁寺は室町時代以来、朝鮮王朝と室町幕府の外交で重要な役割を担当していたため、朝鮮関連の文化財が多数残っています。その中でも、塔頭の正伝永源院本堂の正面に揚げられている「正傳院」の扁額があります。それは1636(寛永13)年朝鮮通信使の写字官である全榮(チョン・ヨン、号は梅隠)が書いたものです。扁額には彼の号である「梅隠」の文字も刻まれています。この他にも建仁寺本坊などにも当時の史料や遺墨が多数残されています。

건인사(겐닌지)는 무로마치시대 이후 조선과 무로마치 막부의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과 관련된 문화재가 다수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절에 속한 암자인 정전영원원(쇼덴에이겐인) 본당의 정면에 걸려 있는 「정전원(正傳院)」이라는 편액이 있다. 그것은 1636년 조선 통신사의 사자관인 전영(호는 매은)이 쓴 것이다. 편액에는 그의 호인 「매은(梅隱)」이라는 글씨도 새겨져 있다. 이외에도 겐닌지 혼보우 등에 당시의 사료와 유묵이 다수 남아 있다.



建仁寺塔頭正傳永源院・겐닌지 부속 쇼우덴에이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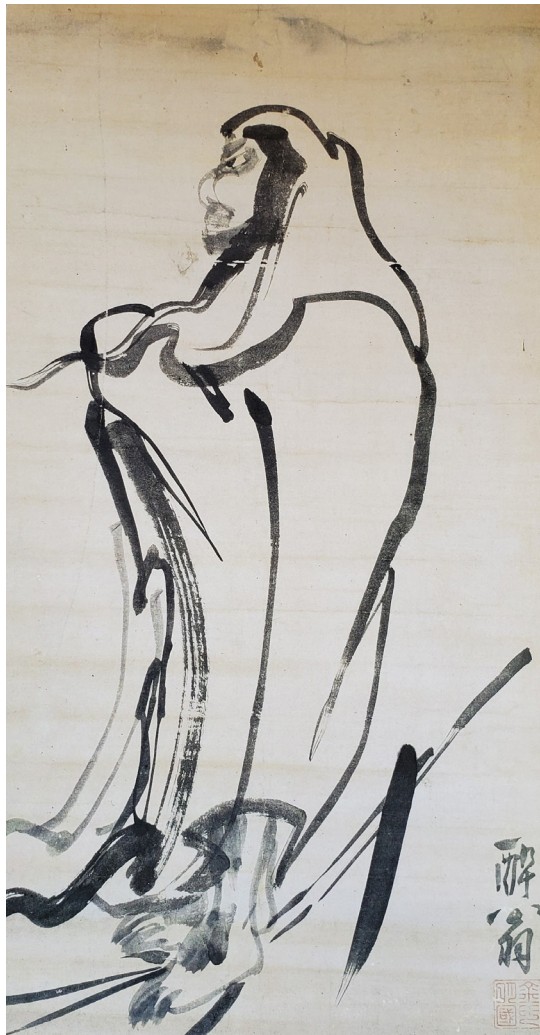
## 12. 金明国の図・김명국의 그림

朝鮮通信使は旅程を記録するため、必ず1人以上の画員を随員に含めていました。彼らが日本で描いた絵も多数残っています。

京都市にある高麗美術館に通信使画員の1人である金明国(キム・ミョング)の画があります。彼は1636(寛永13)年、1643(寛永20)年の2回訪日して、多数の画を残しました。

조선통신사는 일행의 여정을 기록하기 위해 반드시 한 명 이상의 궁정 화원이 수행원으로 동행하였다. 그들이 일본에서 그린 그림이 다수 남아 있다.

교토시에 있는 고려미술관에도 조선통신사 화원의 한 사람인 김명국의 그림이 남아 있다. 그는 1636년과 1643년, 2번 일본을 방문해서 많은 그림을 남겼다.



金明国の芦葉達磨図(韓国国立中央博物館蔵)  
김명국 아시바달마도(한국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3. 京都五山・교토 고산

京都五山とは京都所在の臨濟宗五大寺の称。1334年後醍醐天皇は鎌倉五山を京都中心の五山に改め、南禅寺を筆頭に格づけを行いました。のち種々の変遷を経て、1386年天龍寺・相国寺・建仁寺・東福寺・万寿寺の五寺が決定され、別に南禅寺は別格、大徳寺などは林下の格とされました。

室町時代の京都五山は、仏典の研究ばかりでなく儒学の研鑽にも努めており、そのことは五山文学にあらわれています。

対馬の厳原にあった朝鮮との外交事務を管掌する以酌庵(現西山寺)には、1636年から京都の碩学の僧が輪番僧として派遣されて、1866(慶応2)年の廃止まで、天龍寺から37人、東福寺から33人、建仁寺から32人、相国寺から24人(いずれものべ人数)が赴任しました。

교토 고산이란 교토에 있는 임제종 5대 사찰의 칭호이다. 1334년 고다이코 일왕은 가마쿠라 고산과 별개로 교토 중심의 고산 제도를 만들고, 남선사(난젠지)를 두 고산의 필두로 한 사찰 등급을 정했다. 이후 몇 차례 변화를 거쳐서, 1386년 천룡사(텐류지)·상국사(쇼고쿠지)·건인사(겐닌지)·동복사(도후쿠지)·만수사(만쥬지)의 고산이 결정되었고, 별도로 남선사(난젠지)를 수장격으로 정하고, 재야 사원으로 대덕사(다이도쿠지)를 정했다.

무로마치 시대의 교토 고산은 불경 연구만이 아니라 유학 연구에도 힘썼고, 그것은 고산 문학으로 나타났다.

쓰시마번의 이즈히라에 있었던 조선과의 외교 사무를 관할하는 이정암(이테이안, 현재의 서산사)에는 1636년부터 교토의 석학 승려가 순번제로 파견되었는데, 1866년 폐지되기까지 천룡사(텐류지)에서 37명, 동복사(도후쿠지)에서 33명, 건인사(겐닌지)에서 32명, 상국사(쇼고쿠지)에서 24명(모두 총인원수)이 파견되었다.



南禅寺三門と桜・南선사(난젠지) 산문과 벚꽃



天龍寺曹源池・천룡사(덴류지) 조원지



東福寺 三門と本堂仏殿・동복사(도후쿠지) 삼문과 본당 불전





建仁寺三門入口と法堂・겐닌지 산문(건인사 삼문) 입구와 법당



相国寺三門入口と法堂・쇼코쿠지 산문(상국사 삼문) 입구와 법당



萬壽寺入口鐘樓と建物・만수사(만주지)입구종루와 건물

### 14. 方広寺大仏殿前の招宴拒否・호코지대불전 앞의 연회 거부

岐阜県光明寺に『洛中洛外図』のひとつの絵画があります。そこには京都の方広寺に入る朝鮮通信使が描かれています。豊臣秀吉が建立したこの寺に朝鮮通信使が立ち寄ることになったのは1617(元和3)年からで、慣例となりました。しかし、1719(享保4)年、江戸からの帰路で通信使一行は招宴を拒否しました。方広寺が壬辰倭乱(文禄・慶長の役)を起こした豊臣秀吉が建立した寺であるため大仏殿たちより断ったのです。結局この時は慣例の事ということで予定通り招宴を行いました。次の1748(延享元年)以後は中止されました。雨森芳洲はのちに方広寺訪問と招宴を批判しました。

기후현 광명사(고묘지)에 『낙중낙외도』라는 그림이 있다. 거기에는 교토의 방광사(호코지)에 들어가는 조선통신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운 이 절에 조선통신사가 들르게 된 것은 1617년부터로, 이후 관례가 되었다. 하지만 1719년, 에도에서 돌아오던 통신사 일행은 연회를 거부했다. 방광사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건립한 절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때는 관례대로 연회를 진행했지만, 다음인 1748년 통신사부터는 중지되었다. 아메노모리 호슈는 훗날 방광사(호코지) 방문과 연회 개최를 비판했다.





方広寺と鐘樓・방광사(호코지)와 호코지 종루